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교육위 소속의원 지역구 37억 배정... 평균 19억의 2배

서울신문·시민행동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2배가량 더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지역구 4곳도 역시 교육위원 지역구였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짚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4일 서울신문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가 전국 243개 선거구(17대 국회 선거구 기준)의 초·중·고교에 얼마나 지원됐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평균 19억 8356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27명(재입기간 1개월 이내 2명과 당선후호자 1명 제외)의 지역구에 교부된 특

별교부금은 전체 평균의 2배가량인 36억 853만원이었다.

상위 1·2·3·4위 교육위 지역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4개 지역은 모두 17대 국회 4년간 교육위원들의 지역구였다.

1위 지역은 서울 노원갑으로 관내 초·중·고에 85억 5150만원이 지원됐다. 당시 지역구 의원은 4년간 교육위원을 지낸 정병주(통합민주당) 전 의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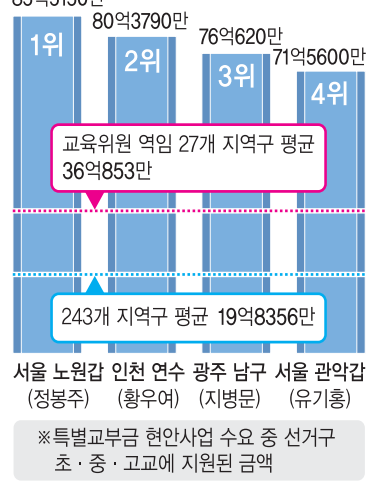
2위는 인천 연수구로 80억 3790만원이 지원됐으며 17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지역구였다.

3위는 광주 남구로 76억 620만원이 지원됐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교육위 간사를 지낸 이병문(통합민주당) 전 의원의 지역구다.

4위는 71억 5600만원이 지원된 서울 관악갑으로 17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원을 지낸 유기홍(통합민주당) 전 의원의 지역구다. 전북 정읍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

(2005~2007년 기준) (단위: 원)



의 재입기간인 2005년 27억 159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김 전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에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일 한 게 문제냐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던 문제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교육청을 통해 지역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지역구에 대한 의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학을 전공한 A교수는 "특별교부금이 관료·국회의원·지방 토호라는 '철의 삼각'에 갇혀 있고, 특별교부금의 혜택을 보는 이들은 개혁할 의지가 없다."면서 "블랙박스 속에 숨겨진 특별교부금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17대 교육위 소속으로 특별교부금 지원규모 축소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낸 바 있는 이주호 전 의원은 "예산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움직이는 예산 배분 과정의 구태를 깨뜨리는 것은 어렵고, 무엇보다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탐사부 tamsa@seoul.co.kr
 ▶ 관련기사 6면

2008 美 대선 美공화당 대선후보 매케인 공식 지명



존 매케인(왼쪽) 대통령 후보와 세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가 3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엑셀에너지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환호하는 대의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세인트폴(미네소타주) AP 특약

오바마에 날세운 페일린 "경험부족·말바꾸기" 조롱 첫 시험대 '저격수' 합격점

미네소타주 김근미특파원 | 미국 공화당은 3일(현지시간) 존 매케인(72) 상원의원을 제44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공화당은 이날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엑셀에너지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사흘째 행사에서 만장일치로 매케인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

또 44세의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는 이날 공화당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1984년 민주당의 제럴딘 페라로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번째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됐다. 이로써 오는 11월4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

의 매케인-페일린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조지프 바이든이 맞붙게 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거나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나오는 미국 역사상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미국 중앙정치부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중간중간 농담을 섞어가며 청중을 쥐락펴락하는가 하면,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날 선 공격으로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

kmkim@seoul.co.kr
 ▶ 2면에 계속/관련기사 18면

가계빚 1가구 3960만원 총부채 비율 GDP대비 73% 카드대란때보다 13%p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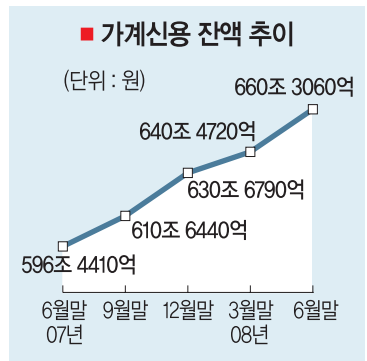
경기둔화 속에서 가계의 빚이 66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73.3%로, 신용카드 대란을 겪었던 2004년(60.9%)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1가구당 부채는 4000만원가량 된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급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08년 2·4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의 잔액은 660조 2060억원으로 지난 3월 말에 비해 19조 8336억원(3.1%)이 증가했다.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수(1667만 3162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부채는 3960만원으로 사실상 4000만원대로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구성은 가계대출 622조 8948억원,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판매신용)는 37조 4112억원 등이다.

2분기의 가계 빚 증가 규모를 보면 전분기(9조 7938억원)와 지난해 동기(9조 9238억원)에 비해 두 배에 이르렀다. 2분기 기준으로만 보



면 2002년 2분기(29조원) 이후 최대 증가액이다.

예금은행 대출을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도 대출이 전분기의 40.7%에서 47.1%로 크게 확대됐다. 만기 구조는 악화됐다. 만기 5년 이상 구조비가 41.9%에서 40.3%로 낮아졌다. 한은 금융통계팀 이상용 과장은 "주택대출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취급했던 집담대출 가운데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추가분이 취급된 데다 재개발 아파트가 많아지고 뉴타운 관련 전세자금 취급이 늘면서 증가했다."며 "신용대출도 은행들의 마케팅 강화와 대출 수요 증가로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 빚 규모도 커졌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관련기사 3면

금융패닉 진정세

4일 연속 폭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일단 '패닉'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잇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9월 위기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진화에 소멸되는 분위기다.

S&P 한국의환등급 'A' 환율 19.50↓ 1129원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9.50원 급락한 1129.00원으로 마감됐다. 환율은 8.50원 떨어진 1140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달러 매물이 유입되면서 하락했다. 한때 수입업체들의 결제수요가 유입되자 다시 상승했지만 당국의 개입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며 1120원대로 하락했다.

문소영 이영기자 symun@seoul.co.kr
 ▶ 2면에 계속/관련기사 19면

충남 관광·투자2과장 공모 2면

당신의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성입니다

당신의 손길, 당신의 향기, 당신의 미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당신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지	남산 화련동	천안 청양동	부산 북구동	부산 영구동	울산캐슬스카이상가
충청권/남부권/동해권/평택권	3864세대/377세대 02)785-0606	1030세대/1030세대 1688-5500	311세대/207세대 1688-5500	1,852세대/935세대 051)205-7747	37개점포 052)221-6116

올 수능 어려울 듯

모의평가 지난해보다 어려워
 평가원 "수리가 난이도 높여"

오는 11월13일에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수리영역이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9월 수능 모의평가를 분석한 결과 수리·외국어·영어·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 등 대부분의 과목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국에서 고3과 재수생 등 62만명이 응시했다.

모의평가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는 올해 수능과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 수능은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입시기관들에 따르면 이번 모의고사의 수리 과목에서는 복합적인 개념을 묻거나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수리 가형(이과)과 수리 나형(문과) 문제는 모두 지난해 수능에 비해 많이 어려웠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던 수리 가형의 경우, 1~5등급을 나누는 등급간 구분점수가 18~34점까지, 수리 나형은 19~28점까지 각각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9월 모의평가 출제방향과 관련,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수준으로 맞췄지만, 지난해 수능에서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있었던 수리 가형은 난이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올 수능에서는 실제로 수리 가형

9월 모의평가 난이도 평가

(2008학년도 수능 비교)

영역	매가스티디	대성학원	유웨이중앙교육
영어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수리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외국어	약간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과탐	다소 어려움	유사	어려움
사탐	유사	유사하거나 어려움	유사

을 비롯, 수리영역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리 과목은 지난해 수능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수리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면 재수생보다 수리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고3 수험생들이 오는 8월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수시 2차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어 영역은 어휘가 어려워지고 지문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영어 영역도 문학에서 일부 생소한 작품이 출제되고,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 지난 6월 모의고사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높았다.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은 시사성 있는 소재가 많이 출제되고 일부 교과서 밖 지문도 활용돼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김성수 이경원기자 sskim@seoul.co.kr
 ▶ 관련기사 10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02)397-3000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